

“탄핵 다음은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삼권 쟁취”

금속노조, 15일 서울 도심 결의대회·행진 ... 7월 총파업 승리 결의



금속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사회 대개혁을 외쳤다.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온전한 개정! 노조할 권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의 지부지회 확대간부 4천여 명이 참석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파면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이후 100일 넘게 이어온 노동자 투쟁이 윤석열 파면과 구속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같은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함께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수 있고 온전한 노동3권을 누리는 사회, 자본가정치인·관료들의 나라가 아닌 평범한 시민이 주인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장창열 위원장은 7월 총파업 조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59차 정기대대에서) 2025년 투쟁을 통해 노동 중심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자고 결의했다. 올 7월 총파업 승리가 사회 대개혁 그 시작이다. 함께 조직하고 함께 돌파해 나가자”라고 독려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석관 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 연대지회 사무장은 “25년 동안

현대차 로고가 박힌 명함을 뿌리며 현대차를 팔아왔는데도 현행 노조법 23조 탓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사용자라 하지 못한다”라고 토로했다.

장석관 사무장은 “노조법 23조를 제대로 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 노조 만들었다고 탄압받고, 또 파업했다고 손해 배상 책임 물리는 부당한 일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종성 충남지부 케이비오토텍 지회장은 윤석열 정권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이종성 지회장은 “노조회계공시, 타임오프 확대 등으로 현상이 많이 위축됐다. 명백한 노조 탄압, 노동통제책”이라며 “이 문제는 노동자들이 투쟁해야만 해결된다. 금속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단호하고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고 투쟁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19만 금속노조 힘으로 노조회계공시, 타임오프만큼은 반드시 폐기하자”라고 호소했다.

김형수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장을 영상 통화로 연결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결의대회가 열린 날 새벽 4시 서울지방고 용노동청과 한화 본사 사이 30미터 CCTV 첩탑 위에 올랐다. 김 지회장은 “2024년 임단협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하청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화오션 원청 탓에 파업도 하고 강인석 부지회장은 49일 단식했다. 농성도 길어지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힘들어도 금속노

조 조합원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나. 악질 자본 한화보다 더 오래 버텨내 꼭 이기겠다. 승리하는 날까지 연대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김형수 지회장이 있는 첩탑을 지나 을지로 1가 일대에서 열린 ‘3.15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했다. 윤용신 노조 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무대에 올라

“내란 사태 이후 석 달 동안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박살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회에 참석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저녁 윤석열 파면 투쟁까지 함께 했다.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구속과 내란 세력 청산을 외쳤다.

김형수 거제고조선하청지회장, 한화 본사 앞 30m 첩탑 올라

한화오션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화 본사 앞 첩탑에 올랐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5일 새벽 4시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앞 30미터 높이 CCTV 첩탑에 올랐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24년 임단협에서 상용직 확대와 하청노동자 임금·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한화오션 원청과 하청업체 사용자들의 교섭 해대로 해를 넘겼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 인상 문제. 한화오션 원청이 지회양보안마저 계속 거부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금속노조는 15일 오후 김형수 지회장이 오른 첩탑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화오션 원청을 향해 하청노동자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외쳤다. 김형수 지회장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투쟁 결의를 전했다. 김 지회장은 “조선업 불황기에는 하청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호황기에는 몇 푼의 던져주

며 생색을 낸다”라며 “한화오션은 차별을 멈추고 약속을 지켜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외쳤다.

